

# ‘내란 연관’ 한덕수, 대선 관리 팽개치고 결국 출마

### 오늘 국회서 공식 출마 선언...내일 발표 국회 후보와 단일화 관련 尹 정부 2인자·저조한 지지율...첫 일정은 광주 5·18 묘역 참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 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총리직 사퇴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한 대행은 지난 2022년 5월 21일 부임한 이후 1077일간 재임하며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로 기록을 세우게 됐다.

한 대행은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며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오후에 광주로 이동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 광주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여는 등 대권 행보에 나선다.

두 번의 총리까지 지낼 정도로 관료로서는 성공했지만, 대선 후보로서는 가능성과 한계가 교차한다.

오랜 관료 경험과 보수·진보 진영을 넘나들며 경제·외교 분야에서 중책을 맡았다는 점은 보수 진영에서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다.

우선 출마 명분의 문제다. 대선을 공정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이 직접 대선에 나가는 데 대해 심판이 선수로 뒤틀리는 비판은 일찌감치 제기됐다.

정치 경합이 부족한 것도 불리한 점이다.

당장 오는 3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직과 자금의 뒷받침 없이 단기필마로 대선 레이스를 완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고도의 정치력과 수 싸움이 필요한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한 대행이 주도권을 쥌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과거 고건 전 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대국민 담화 뒤 정부서울청사를 나서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몽준 전 국민통합21 후보와 같은 ‘제3지대’ 인물들과 다르게 독자적 지지율을 기록하지 못한 채 출마하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범보수 빅텐트’를 구축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은 한 대행이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이 있다며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2인자’로서 민주당의 ‘내란 프

레임’에 묶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론은 한 대행이 지닌 최대 약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조국혁신·진보당 “대법, 명백한 선거개입”

###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 정당 반응...국힘 “법치 복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1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정당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 판결 이후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법원 파기 환송에 따른 선거 영향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특대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며 “이례적인 선고 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정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극우 내란 세력의 역습”이라고 비판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명백한 사법 쿠데타이자, 주권자 국민의 선택을 코앞에 둔 시점에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더니 결국 정치 한복판에 뛰어 들어 분탕질을 하겠다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은 이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문제삼으며, 후보 자신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후보 자신 사퇴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재명 42%·한덕수 13%·한동훈 9%

### NBS 대선후보 적합도... ‘가상 3자 대결’ 이재명, 누구와 붙어도 46%

차기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이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각각 89%, 82%로 나타났다.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경우 차기 대통령 적합도로 1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의 차기 적합도는 9%, 김문수 후보의 적합도는 6%였다.

한 대행과 한 후보 적합도는 오차범위 내이고, 한 대행과 김 후보는 오차범위 밖이다.

이어 한 후보와 김 후보 적합도는 오차범위 내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대행이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32%로 가장 높았고, 한 후보 21%, 김 후보 15%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의 차기 적합도는 2%로 집계됐다. 18%는 모름·무응답 등으로 태도를 유보했다.

대선에서 이재명·한덕수·이준석 후보가 붙는 것을 상정한 ‘가상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6%였고, 한덕수 후보는 31%, 이준석 후보는 6%였다.

이재명·한동훈·이준석의 3자 대결 구도를 가정했을 때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5%, 한동훈 후보 24%, 이준석 후보 6%의 순이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대결 구도를 가정했을 때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25%, 이준석 후보 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